

미래세대 비전 위해 투표... 굳건한 민주주의 만들자



손어진

김인환

김현승

남진희

이유빈

광주·전남 20~30 청년 유권자

“투표로 내란 세력 심판해야”

고용·주거 등 현실 문제 해결을

광주·전남 20~30 청년 유권자는 일자리, 미래세대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을 요구하며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나락함을 본 미래세대들은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광주일보가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20~30 청년 유권자 5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손어진(여·39)씨는 “12·3 계엄 이후 윤석열씨가 탄핵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세력에 대해 투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비상계엄 이후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손씨는 “12·3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약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광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자신의 지지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표권을 꼭 행사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웃어보였다.

청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유권자도 있다.

김인환(20)씨는 “현재 20~30 유권자 비율이 가장 적은 상황에서 청년이 투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가가 살피야 할 청년의 미래 때문”이라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중장년층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청년세대의 경제·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버려두면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투표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청년들의 투표율을 올려야 (정치인들이) 청년세대의 표를 사수하려 할 것이고, 사회에서는 청년세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혜택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 청년세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이은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해결을 소망하는 청년 유권자들이 많았다.

순천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예비 간호사로 있는 김현승(여·23)씨는 “청년 간호사로서,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지방 청년으로서 투표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과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방 대학과 지역 일자리 문제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될 과제로 제시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졸업 후 당연히 취업할 줄 알았던 병원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좁아져 있었고 채용 공고 하나가 뜨면 수십, 수백명이 지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 환자 곁에서 일하고 싶은 간호사들이 더 이상 벼랑 끝에서 서성이지 않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날마다 거리로 나와 응원봉을 흔들었던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진희(여·24)씨도 계속되는 고용 한파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원했다.

남씨는 “그동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청년 공약이라면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취업 걱치는 벌어지고 계약직만 늘고 정규직 고용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다”면서 “이번 대선은 참채 상대인 한국에 전환점을 가져올 대선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청년 공약을 내걸고서 이를 제대로 실천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어 “그동안 청년 공약은 포퓰리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청년들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극단적인 편 가르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유빈(여·24)씨도 등록금,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같은 20대들이 겪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소망했다.

이씨는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지원이나 자취하는 학생들의 청년 월세 지원, 그리고 졸업 후의 일자리에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을 갖고 있다”면서 “청년들도 권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인 투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단 한 번의 투표 결과에 따라 또다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에 꽤 무거운 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권리이자 책임인 투표권을 행사해 미래에 살아갈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개표 준비 끝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종사원들이 투표지분류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역대 두번째 사전투표율...최종 투표율 80% 넘길까?

김대중 당선 15대 대선 마지막...수도권·영남지역 본투표 집중시 가능

제 21대 대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치러진 3차례 대통령 선거(18대~20대) 최종 투표율은 70%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맞붙었던 제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투표율 80%를 넘어설 수 있을 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대선 사전 투표율은 34.74%로, 지난 20대 대선(36.93%)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사전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3일 본 투표를 합한 최종 투표율이 80% 돌파가 가능할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광주일보 등 전국 각 지역 대표신문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1.8%p)에서 이번 대선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97.8%였다.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도 0.8%로 미미했다.

투표율 80%를 넘어선 선거는 지난 15대 대선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전국 투표율은 80.7%를 기록했다. 이후 60~70%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전국 투표율은 77.1%였다.

이번 대선의 경우 20대 대선때 보다 사전 투표율은 낮지만,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으로 저조했던 영남지역 투표 참여가 본 투표에 집중된다면 최종 투표율은 20대 대선을 앞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선거 판세가 일찍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우세 쪽으로 기울었다는 점은 높

은 투표율을 기록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경농단’ 사태로 일찍이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세론이 굳게 자리잡히면서 전국 투표율은 77.2%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은 호남에서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고, ‘내란 심판론’이 본 투표에서도 유권자를 불러 모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80% 돌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어느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선거”라며 “특히 호남의 투표 열기가 수도권까지 미친다면 투표율 80%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협-에이스리서치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 자정쯤 당선인 윤곽 나올 듯

내일 오전 6시 개표 완료 전망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광주 5곳, 전남 22곳을 비롯해 전국 254곳에서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8시 이후 시작되고 자정쯤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는 오후

8시 30~40분께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된다. 투표용지 자동분류기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선관의 측에서는 수검표가 중간에 들어가도 전체적인 개표 시간에는 큰 지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총 개표완료까지는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대선 개표는 4

일 오전 6시쯤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개표시간과는 크게 격차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개표시간을 비교해 추정하면 9시 전에 개표가 시작되고 4일 자정께에는 개표가 70% 이상 진행돼 당선자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후보자 간 접전 여부 등에 따라 개표 결과 시간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